

야쿠스기 삼나무 공예

야쿠스기 삼나무는 나뭇결이 촘촘하고, 윤기 나는 광택이 있고,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사용한 공예품은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는 수령 1,000 년이 넘었으며 또한 2001 년에는 벌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특히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예품은 쓰러진 나무나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벌채에서 남은 목재 자투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귀중한 목재

야쿠시마 섬의 목재 산업은 1960 년대에 절정을 맞았고 그 이후 쇠퇴했습니다. 수목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2001 년에 벌채가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목공예는 주로 목재 자투리나 벌채된 나무의 그루터기, 또는 자연적으로 쓰러진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야쿠스기 삼나무의 자투리를 통틀어 ‘도마이보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 지붕 널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냈던 에도 시대(1603~1867)에는 나뭇결이 곧은 목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무꾼들은 지면에서 2m 가 넘는 높이에서 야쿠스기 삼나무를 벌채하여 나뭇결무늬가 복잡한 뿌리 부분을 피했습니다. 도마이보쿠가 이끼에 덮여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부·항균·방충 효과가 있는 수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습기가 많은 숲속에서도 보호되고 손상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는 해발 1,000m 전후의 깊은 산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선 다루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운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20 년대에는 벌채한 야쿠스기 삼나무를 연안의 안보, 미야노우라, 나가타, 구리오로 내려보내기 위해 네 군데의 산림철도가 건설되었는데, 현재에는 발전소나 댐의 유지 보수를 위해 계속 운행하고 있는 안보 철도의 일부를 제외하면 전부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는 헬리콥터로도 운송했지만, 도마이보쿠 자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이 역시 2015 년에 종료했습니다. 이전에는 야쿠시마 섬과 가고시마의 목재 시장에 들어온 도마이보쿠에 각 공방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이보쿠가 감소하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일본 임야청과 야쿠시마 메이보쿠(고급 목재) 협동조합이 체결한 수의계약에 따라 연간 2 회 소량이 판매될 뿐입니다. 조합은 그 뒤 수의계약에 따라 가맹기업에 도마이보쿠를 판매합니다.

비와 안개가 많은 산림 환경에서 운반된 목재는 곧장 가공되지 않고, 원목의 크기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자연적으로 건조시킵니다. 목재가 마르면 숙련된 장인이 선반을 사용해 야쿠스기 삼나무를 다양한 제품으로 완성해나갑니다. 고스기-수령 1,000 년 미만의 젊은 삼나무-도 저렴한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신이 사려고 하는 물건이 진짜 야쿠스기 삼나무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공예품

야쿠스기 삼나무가 통나무 상태일 때 목재 품질을 가려내려면 경험이 풍부한 프로의 눈이 필요합니다. 야쿠스기 삼나무 공예품에는 큰 가구부터 젓가락과 컵받침, 열쇠고리 등 더 가격이 적당한 작은 작품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전부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야쿠스기 삼나무는 나뭇결이 촘촘하고 칠하기가 쉬워서 아름답게 마감되어 흠집과 건조로부터 목재를 보호합니다. 또한 이 목재의 수지는 사용할수록 광택이 더해집니다.